

불법공매도 조사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

2023. 11. 16.



금융감독원

-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척결을 위해 '공매도조사팀'을 '공매도 특별조사단'으로 확대 개편('23.11.6.)하고
 - 불법 공매도 관련 조사기법 향상, 전담 조사인력 확충 등 조사 역량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음
- 금년 중, 무차입 공매도 62건을 조사하여 33건을 조치완료*하였으며, 나머지 29건은 조사·제재절차 진행 중

* 과징금 93.8억원(32건), 과태료 11.2억원(1건, 과징금 도입 前 사례) 부과

- 특히,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2개사에 총 60.5억원의 과징금 부과('23.3)를 시작으로, 공매도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제재하고 있음

< 공매도 위반 및 조치 현황 >

(단위 : 명, 억원)				
구분	'20	'21	'22	'23.10.
위반자 수(외국인)	4 (4)	14 (14)	28 (25)	33 (22)
과태료/과징금	7.3	8.0	23.5	105.0

- 또한, 그간 시장에서 의혹으로 제기되어 왔던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¹⁾ 사례('23.5)와
 - 글로벌 IB의 관행적인 불법공매도 행위²⁾('23.10월) 등을 최초로 적발하여 엄중 조치할 예정

1) 외국계 헤지펀드 등이 블록딜 가격을 하락시키거나, 블록딜 정보 공개 前 시세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차입 상태에서 고의로 매도 주문을 제출

2) 대차거래내역의 관리 부실 등으로 先 매도 後 차입을 반복하는 등 불법 공매도 행위를 장기간 방치

2

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 및 조사현황

- (구 성) 글로벌 IB에 대한 전면적인 불법공매도 조사와 무차입 공매도 사건 급증에 따른 적시 대응을 위해 전담조직 확대
 - 금감원 內 조사경력자, 영어능통자와 IT전문가 등 총 20명으로 구성 [단장, 1팀, 2반]
- (조사현황) 일부 글로벌 IB에 대한 조사는 이미 진행하여 혐의 종목·기간 및 위반 내용 등을 확인 중
 - 또한, 여타 IB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 진행 예정

3

향후 대응계획

(1) 글로벌 IB 등에 대한 조사실시

- (글로벌 IB)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공매도 부분재개('21.5월) 이후 거래에 대해 조사
 - 기존의 종목 중심 조사에서 기관(투자자) 중심으로 조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, 공매도 거래를 집중조사
- (국내 수탁증권사)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
 - 공매도 주문수탁 프로세스, 불법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

- **(공매도 악용 불공정거래)** 불법공매도 조사 과정에서 미공개중요 정보 이용행위, 시세조종행위 등 공매도 악용 개연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 (예 : 현재 블록딜 정보를 이용한 악의적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제재 절차 진행 중)

※ 불법 공매도를 신속히 척결하고,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글로벌 IB에게 자진 신고시 감경가능 사실을 안내하여 적극적 신고를 유도

(2)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 점검 등

- **(점검실시)** 업무절차의 적법성, 예외적 허용 공매도의 적정성 등 확인을 위한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점검 진행 중
- **(감시강화)**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 등을 중심으로 거래소 등 관련기관과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이상징후 발견시 신속하게 조사 실시

(3) 국제조사 및 사전예방 활동

- **(국제공조)** IOSCO EMMOU에 의거 홍콩 금융당국(SFC) 등 외국 감독당국과 공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국제조사 실시
- **(사전예방)** 해외 소재(예 : 홍콩, 싱가포르 등) 외국계 IB 등 대상 간담회를 통해 국내 관련법규 및 공매도 규제 위반사항 등을 안내하는 등 사전예방 노력 지속 추진